

# DBpia

##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Changes in the Originators and Artisans of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of the late Silla -early Goryeo Period

---

저자 (Authors)	陳政煥 Jin, Joung-hwan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a> , (32), 2014.12, 341-388 (48 pages) <a href="#">SILLASAHAKPO</a> , (32), 2014.12, 341-388 (4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25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256</a>
APA Style	陳政煥 (2014).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a href="#">신라사학보</a> , (32), 341-38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陳政煥\*

I. 머리말	V. 發願者와 匠人의
II. 新羅 下代 發願者와 匠人	變化 樣相과 意義
III. 後三國期 發願者와 匠人	VI. 맺음말
IV. 高麗 前期 發願者와 匠人	

## 【국문초록】

신라 하대에는 본격적으로 불교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민중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던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 아울러 불교석조미술 역시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공간적 확산’은 있었지만, 왕실에서 기층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불교석조미술품 조성에 참여한 ‘계층적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 <南原 池唐里 石佛立像 考察> 《東岳美術史學》 8, 東岳美術史學會, 2007 ;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東岳美術史學會, 2010. 6 ; <統一新羅 鼓腹形石燈과 實相山門> 《전북사학》 42, 전북사학회, 2013. 4 ; <任實 珍丘寺의 所屬 宗派 變化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40, 韓國文化史學會, 2013. 12 외 다수

본 논문은 불교석조미술품 조성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공간적 확산’과 더불어 ‘계층적 확산’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라 하대, 후삼국기, 고려 전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발원자의 출신성분과 발원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계층적 확산’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장인계층의 확대’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 결과, 통일신라시대나 고려 중기 이후와 달리 거군(현)적 향도의 발원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발원 목적 역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모한 불교석조미술품이 많이 조성된 고려 전기야 말로 불교가 대중화되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전기가 통일신라 혹은 고려 중기 이후와 다른 면모를 정리하면, 첫째, 개인의 기복과 추복을 목적으로 한 통일신라와 고려후기 불교석조미술품과 달리 거군(현)적 향도가 주도한 고려 전기 불교석조미술품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발원의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소규모 향도와 달리 바라는 바가 다양한 조직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을 내세운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둘째, 고려 전기는 향도 주도의 불사가 활발했던 시기이다. 고려 전기의 향도는 통일신라시대 향도와 달리 거군(현)적 향도결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계층에 따라 세분화되고 소규모화 된 고려 후기 향도와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거군(현)적 향도결사는 동일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왕조의 출현 이후에도 통일신라 불교석조미술품을 계승한 전통양식 불교석조미술품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삼국시대 불교미술품을 모방·재현하고자 한 복고양식의 불교석조미술품의 조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고려 전기의 향도는 주로 석탑·불상 등 대규모의 불사를 주도한 반면, 고려후기의 향도는 신앙의례 활동과 소규모 불구제작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향도결사의 규모, 활동 내용의 변화와 고려 전기의 피체적이고 규모가 큰 불교석조미술품이 고려후기에 피체감이 상실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과 일치한다. 물론 큰 규모의 불사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대규모 향도가 조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신집권과 몽고의 침입 이후 신분에 상관없이 출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향도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불교석조미술의 조성 자원 마련에도 영향을 끼쳐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넷째, 고려 전기에 장인에 대한 관리체제, 즉 부역층 장인의 번차제와 수원승도제의 확립에 따라, 다양한 불교석조미술품 양식이 출현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지방에서는 불교석조미술품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을 활동기반으로 한 공장승이 불사에 참여하면서, 통일신라 불교석조미술품을 계승하거나, 삼국시대 불교석조미술품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부역층 장인에 대한 번차제는 중앙의 불교석조미술양식을 접한 장인에 의해 신앙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함께 신앙식-전통양식, 신앙식-복고양식, 전통양식-복고양식 간에 절충양식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 신라 하대, 고려 전기, 불교석조미술, 발원자, 장인

## I. 머리말

新羅 下代에는 본격적으로 불교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민중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던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sup>1)</sup> 아울러 불교석조미술 역시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sup>2)</sup> 그렇지만,

- 1) 불교가 공인된 이후 하향식 왕실불교의 성격을 보이거나, 선사와 국사를 우대한 閔哀王代 이후, 즉 9세기 중엽부터 불교가 민중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민중불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볼 수 있다.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社會構造>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2~11쪽.
- 2) 고려 불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왕실~기층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신앙되어 다양한 양식의 불상이 조성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敎 研究> 《考古美術》 166·167, 1985, 57~81쪽.  
석탑 역시 7세기~8세기 12개 지역에서 총 25기의 석탑이 조성된 반면에

이 시기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공간적 확산’은 있었지만, 왕실에서 기층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불교석조미술품 구성에 참여한 ‘계층적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불교석조미술품 구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시기에 ‘공간적 확산’과 더불어 ‘계층적 확산’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라 하대, 후삼국기, 고려 전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발원자의 출신성분과 발원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계층적 확산’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장인계층의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해볼 것이다.

## II. 新羅 下代의 發願者와 匠人

### 1. 發願者

통일신라시대 불교석조미술품의 발원자를 살펴보면(表 1), 신라 중대는 물론 하대까지 왕실·귀족·승려가 발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향도결사가 극소수로 참여하였다.<sup>3)</sup> 그 조성 목적은 ‘호국’과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海印寺 妙吉祥塔 같은 극히 일

9세기에는 60개 지역에서 115기의 석탑이 조성되었다.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388~389쪽.

3) 申龍澈은 통일초기 불탑의 발원자는 왕실이 중심이었다가 통일신라 말기에는 승려들의 발원으로 불탑이 조성되었다는 것과 함께 민간 발원 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申龍澈, <統一新羅時代 佛塔의 發願者와 製作者> 《文化史學》 31, 2009. 6, 64~71쪽.

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의 祈福 또는 追福과 관련이 있다.

表 1. 統一新羅時代 石造美術品の 發願者와 匠人

名稱	造成 時期	發願者	造成 目的	匠人	備考
皇福寺 三層石塔	692年	神陸太后 孝昭大王/ 聖德王	神文王/ 神陸太后 孝昭王		
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	719年 頃	重阿湊 金志全	亡考 國主大王 等		
甘山寺 石造彌勒菩薩立像	719年 頃	重阿湊 金志誠	亡妣 國主大王 等		
葛項寺 三層石塔	天寶 17年 (758)	言寂法師 照文皇太后 敬信太王	個人		
永泰二年銘 塔誌	永泰 2年 (766)	朴氏 芳序 令門(僧)	個人		
永泰二年銘 蠟石製舍利壺	永泰 2年 (766)	釋 法勝 釋 法緣	豆溫愛郎		
龍鳳寺 貞元十五年銘 磨崖佛立像	貞元 15年 (799)	□香徒 官人 長珎大舍		伯士 元烏法師	
防禦山 磨崖佛	貞元 17年 (801)		父母 一切衆生		
法光寺 石塔誌	太和 2年(828) 會昌 6년(846) 重修	香照 圓寂 香純	成德大王 (檀越)今上		
昌林寺 無垢淨塔誌	大中 9年 (855)	文聖王	衆生 救濟	修造塔使 設置 全國 選拔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大中 12年 (858)	金遂宗/ 憲安王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敏哀大王舍利壺	咸通 4年 (863)	景文王	閔哀王	梵覺	
倒彼岸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咸通 6年 (865)	香徒 1,500名		伯士 □龍	
鷲棲寺 三層石塔 蠟石製舍利壺	咸通 8年 (867)	僧侶 彥傳	母	石匠 神孥	
開仙寺址 石燈	咸通 9年 (868)	景文王 文懿王后 大娘(眞聖女王)	國王 一家		
寶林寺 三層石塔	咸通 11年 (870)	景文王 /金遂宗	憲安王	勅伯士及干珎鈕	
禪房寺 三層石塔	乾符 6年 (879)	忠心/志蓋		大伯士 林典, 道如	

己酉銘 佛像	□紀 元年 己酉(889)	□□長 戌□□			
海印寺 妙吉祥塔	乾寧 2年 (895)	別大德 僧訓	護國 억울하게 죽은 靈魂 救濟	大匠(匠士) 僧 蘭交僧 清裕 副匠士 居弗, 堅相, 具祖	

한편, 발원자가 귀족과 승려임에도 국왕과 왕실의 기복과 추복을 내세우는 불교석조미술품이 많이 보인다. 특히 왕권이 강했던 신라 중대는 물론이고 왕권이 비교적 약화되었다고 인식되는 신라 하대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719년 무렵 金志誠은 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과 石造彌勒菩薩立像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국왕을 앞세웠다(A-①). 이 불상이 조성된 때가 신라 전제왕권이 확립된 聖德王代라는 점에서 귀족계층이 왕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4)</sup>

A-① 그러므로 국주대왕과 이찬 개원공, 망고, 망비, 망제 소사 양성, 사문 현도, 망치 고로리, 망매 고보리 또 처 아호리 등을 위하여 그의 감산장전을 회사하여 이 가람을 세웠다. 이에 석조 아미타상 1구를 조성하니 옆드려 바라건대 이 작은 인연이 피안에까지 넘어가 사생 육도의 중생 모두 보리를 증득하소서.<sup>5)</sup>

- 4) 神文王은 전제왕권의 확립을 위해 귀족세력의 숙청을 단행하는 등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정치, 군사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聖德王代(702~737)는 신라 전제왕권이 안정화된 시기이다.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0, 107~109쪽.

- 5) 金南允, <甘山寺 彌勒·阿彌陀像 造像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293~302쪽.

故奉爲國主大王 伊滄愷元公 亡考 亡妣 亡弟小舍梁誠 沙門玄度 亡妻古路里 亡妹古寶里 又爲妻阿好里等 捨其甘山莊田 建此伽藍 仍造石阿彌陀像一軀 伏願託此微因 超昇彼岸 四生六道 並證菩提

A-② 불상을 조성한 때는 석가여래 입멸 후 1808년이다. 이때는 情王 즉위 3년이다. 대중 12년(현안왕 2년, 858) 무인 7월 17일 무주장사현 부관 김수종이 진주하여, 정왕은 8월 22일 칙령을 내렸는데 몸소 지으시고도 피곤함을 알지 못하셨다.<sup>6)</sup>

A-③ 탑을 조성한 때는 함통 11년 庚寅 5월 어느 날이다. 그 때는 경문왕이 즉위한지 10년이였다. 말미암은 바는 현안왕의 왕생을 위하여 삼가 만든 탑이다. 서원부 소윤 나마 김수종이 아뢰었고 칙명을 받들어 탑을 조성한 우두머리는 급간 진뉴이다.<sup>7)</sup>

A-④ 법광사 석탑기 / 회창 6년 병인 9월 옮겨 세우고 수리하다. 원컨대 대대로 단월은 정도에 태어나시고 금상께서는 복과 수명이 길어 뻗치소서. 안에 사리 22매를 넣다. 상좌 道興 대화 2년 무신 7월 香照 스님과 비구니 圓寂이 재물을 희사하여 탑을 세웠다. 절의 단월은 成德大王이며 典은 香純이다.<sup>8)</sup>

신라 하대인 858년과 870년에 각각 조성된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圖 1)과 三層石塔의 실질적인 발원자인 金遂宗 역시 憲安王

6) 金南允, <寶林寺 毘盧舍那佛 造像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12~313쪽.

當成弗時 釋迦如來入滅後一千八百八年耳 此時 情王即位 第三年也 大中十二年戊寅 七月十七日 武州 長沙 副官 金遂宗 聞奏 情王 □八月廿二日 勅下令 □躬作 不覺勞困也

7) 金南允, <寶林寺 石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32~334쪽.

造塔時 咸通十一年庚寅五月日 時凝王 即位十年矣 所由者憲王 往生慶造之塔 西原部 小尹 奈末 金遂宗 聞奏 奉勅伯士及干 珍鈕

8) 金南允, <法光寺 石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24~325쪽.

法光寺石塔記

會昌六年丙寅九月 移建兼脩治 願代代壇越 生淨土 今上福命長遠 內舍利 廿二枚 上座道興

大和二年戊申七月 香照師 圓寂尼 捨財建塔 寺壇越成德大王 典香純

(857~861)과 景文王(861~875)과의 결연을 강조하였다(A-②, ③). 뿐만 아니라, 승려가 발원한 法光寺 三層石塔(圖 2)의 조성과 중수 시에도 왕실을 앞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A-④). 828년 香照, 圓寂 등의 승려가 재물을 희사하여 세운 석탑의 단월 즉, 기원의 대상이 興德王代(826~836) 上大等을 역임한 金均貞(?~836)이다. 아울러 844년 이 석탑을 중수 할 때에도 이미 죽은 단월(김균정)의 淨土往生은 물론 중창 당시의 국왕인 문성왕의 福壽를 기원하고 있다.



圖 1.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造像記



圖 2. 法光寺 三層石塔 石塔記

이러한 배경에는 신라 왕실이 귀족을 포함한 개인의 불사를 철저히 금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다만 855년 文聖王이 조성한 昌林寺 無垢頂光塔<sup>10)</sup>과 景文王이 863년 閔哀王의 추송을 위해

9)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四年.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七年 春三月.

下教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普告施行

10) 崔鉛植, <昌林寺 無垢淨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26~331쪽.

國王 慶膺 造 無垢淨塔 願記

조성한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sup>11)</sup>처럼 왕실이 발원한 불교석조미술품은 불사 금지와 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그런데 귀족이나 승려의 발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왕실)의 기복(추복)을 내세운 불교석조미술품들은 중대와 하대를 막론하고 왕권이 강성했던 시기가거나, 적어도 국왕과 귀족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조성된 것들이다.<sup>13)</sup> 이와 달리 왕권이 약했던 중대의 惠

恭願 此功德 廣越天滄 高踰有頂 利 彼蠢動含靈 復願 國王 永主 人天 會其報盡之日 捨粟散之名 齊於 无上之位

維唐 大中 九年 歲 在乙亥 夏首閏月 日 建

- 11) 金南允, <閔哀王石塔 舍利盒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55~360쪽.

國王奉爲 敏哀大王 追崇福業 造石塔記 … 時咸通四年 歲在癸未 無射之月 十日記 ……

- 12) 申龍澈은 鷲棲寺塔과 海印寺 吉祥塔 이외에 발원자와 관계없이 왕실의 기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文武王代 시주 금지와 哀莊王代 불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기복과 추복과 관계된 불사에 엄격한 규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68쪽.

- 13) 전제왕권이 확고하였던 중대는 귀족세력에 비해 왕권이 강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金在弘, <新羅 統一期 專制王權 강화와 村落支配> 《新羅文化》 22, 2003. 8, 113~139쪽; 李泳鎬, <新羅의 王權과 貴族社會> 《新羅文化》 22, 2003. 8, 47~92쪽; 李仁哲, <新羅의 王權과 政治構造> 《新羅文化》 22, 2003. 8, 17~45쪽; 김영하, <新羅 中代王權의 기반과 지향> 《韓國史學報》 16, 2004. 3, 9~43쪽.

신라 하대의 경우 헌덕왕대 발발한 김헌창의 난 이후 즉위한 흥덕왕은 일련의 개혁을 시도하여 귀족세력을 견제하려 하였다. 문성왕~진성여왕은 찬탈이 아닌 직계 자손에 왕권이 평화적으로 계승되었던 시기이다. 아울러 문성왕 집권 후반기 이후부터는 내물왕계 진골귀족의 모든 친족 집단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6, 1~38쪽; 李光奎, <新羅의 親族體系> 《東亞文化》 14, 1977. 12, 45~285쪽;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3, 1~40쪽; 金志垠, <新羅 景文王의 王權強化政策> 《慶州史學》 21, 2002. 12, 31~56

恭王, 하대의 昭聖王, 哀莊王 집권 초기, 眞聖女王 집권시기에는 발원자인 귀족 혹은 승려의 기복을 기원하는 불교석조미술품이 등장한다.

永泰 2년(766)銘 塔誌石(B-①)이 봉안되어 있던 安城 竹山面 彌勒堂 石塔과 石南巖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B-②)은 신라 중대인 혜공왕 초기에 조성된 것들인데, 국왕(왕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혜공왕은 765년 경덕왕의 뒤를 이어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는데, 즉위 후 大恭과 大廉 등 96각간의 상쟁과 연이는 반란, 가문과 기근, 역병이 창궐한 시기였다.<sup>14)</sup> 왕권이 불안정했던 하대 초기에 조성된 龍鳳寺 磨崖佛立像(B-③), 防禦山 磨崖佛立像(B-④) 역시 국왕(왕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국왕의 기복(추복)을 발원의 목적하지 않은 불교석조미술품에서 왕권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던 귀족계층의 동요를 살펴볼 수 있다.

B-① 永泰 2년(766) 병오년 3월 30일에 박씨와 芳序 舍門 두 승려가 먼저 한번 만들고자 한 것을 이루었다.<sup>15)</sup>

쪽; 김창검,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新羅文化》 22, 2003. 8, 1~23쪽; 황선영, <新羅下代 景文王家的 王位繼承과 政治的 推移> 《新羅文化》 27, 2006. 2, 23~44쪽;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27~52쪽; 姜在光, <文聖王代의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의 政治적 배경> 《한국고대사 탐구》 7, 2011. 4, 97~138쪽.

- 14)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泳鎬, <신라 혜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333~360쪽; 李文基, <신라 혜공왕대 五廟制와 改革의 政治적 의미> 《白山學報》 52, 1999, 795~840쪽; 김선숙, <新羅 惠恭王代(765~780)의 國內外情勢와 對日外交> 《정신문화연구》 30, 2007, 3~29쪽.

- 15) 鄭炳三, <永泰二年銘 蠟石舍利裝置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

B-② 永泰 2년 병오 7월 2일에 석 法勝과 석 法緣 두 승은 함께 받들어 돌아가신 豆溫哀郎의 원을 위해 石造毘盧遮那佛을 이루어 무구정광다라니와 함께 石南巖藪(석남암사)의 觀音巖에 둔다.<sup>16)</sup>

B-③ 정원 15년 기묘 사월 일에 발원하여 조성하였다. 장인(大伯士)은 元烏法師이고, 시주(향도)는 관인 長珍大舍이다.<sup>17)</sup>

B-④ 정원 17년 신사 3월 16일 홍암에 부처를 조성하고 기록한다. 원컨대 ... 아버지 ... 어머니 ... 또 일체 중생을 ...<sup>18)</sup>

왕권의 盛衰에 따라 기복이나 추복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비단 귀

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53~354쪽.

永泰二年 丙午 三月 卅日 朴氏 芳序 令門 二僧 謀一造之先 □行能  
16) 鄭炳三, <永泰二年銘 毘盧遮那佛 造像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16~318쪽.

永泰二年 丙午 七月 二日 釋法勝 法緣 二僧 并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  
願爲 石毘盧遮那佛成內 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在內如  
17) 黃壽永, <貞元十五年銘磨崖如來立像銘>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혜안, 1999, 284쪽.

貞元十五年 己卯 四月 日 仁符□佛願 大伯士元烏法師 □香徒 官人 長  
珍大舍

尹善泰는 용봉사 마애불 조성에 대백사 원오법사를 대표로 하는 향도로 보고 있다.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 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新羅文化》 26, 2005. 8, 129~130쪽.

그러나 대백사 원오법사는 다른 불교석조미술품의 백사의 용례와 비교해볼 때 장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문명대 역시 원오법사를 장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명대, <홍성 용봉사(龍鳳寺) 정원(貞元) 15년명 마애불상 및 상본 마애불상>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a, 318~322쪽.

18) 黃壽永, <防禦山磨崖三尊銘>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혜안, 1999, 284~285쪽.

成人弥刀秦 貞元十七年辛巳三月十六日 鴻巖仏成記 願旨 □父□不□□  
□日弥二□母弥又一切衆生□

족뿐만 아니라, 埋香佛事에 참여한 香徒結社의 양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泗川 新羅 香徒碑는 了言이라는 승려의 주도 아래 縣令·上村主 등이 참여하여 國王·上大等·州總管의 복을 기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C-①). 이 비석은 八珍과 阿干 貴珍이 결성한 康州地域의 미타결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여,<sup>19)</sup> 景德王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하대가 막 시작된 786년에 제작된 靈巖 新羅 埋香碑에서는 國王(왕실)의 기복이나 추복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살펴볼 수 없다(C-②). 이 비석이 제작된 시기는 元聖王 재위 2년으로 武烈王系 진골귀족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처럼 향도결사가 주도한 불사에서도 전제왕권이 최성기에 달했던 경덕왕대와 귀족층의 반발이 극심했던 원성왕 즉위 초의 시대상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C-① 更得乃末□香徒 國王流雲大王 上大等□ … 神述時 州總官 蘇干 … 香徒 上 了言大德 縣令 … 乃末禮眞 上村主岐□<sup>20)</sup>

C-② 정원 2년 병인 5월 10일 차평 바깥의 석장 내. 잊지 말 것. (비를) 세운 (곳) 삼십(군데) 있음. 夫□山 乙卯□ 방향에, 香 10束(을 넣음). 乙卯 방향에 (향을) 入(藏한) 사람의 이름은 力知, 焉生, 右이다. 잘 매장되었음<sup>21)</sup>

한편, 신라 중대부터 매향불사와 같은 의례를 주도한 바 있는 향도결사는 신라 하대에 들어서서 불교석조미술품의 발원 계층이 되었던

19) 尹善泰, 앞의 논문(2005. 8), 128쪽.

20) 慶南文化財研究院 《泗川 船津里城 整備事業敷地內 發掘調査 概要》, 慶南文化財研究院, 2004. 6; 尹善泰, 앞의 논문(2005. 8), 127쪽.

21) 尹善泰, 앞의 논문(2005. 8), 132쪽.

貞元二年 丙寅 五月 十日 偕坪外香藏內 不忘 入□有卅 夫□山 乙卯□ 合香十束 入乙卯□人名 力知 焉生 右 仁開

데, 865년에 1,500명의 향도가 참여하여 조성한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대표적인 예이다(D-①).<sup>22)</sup>

D-① 香徒佛의 銘文과 序 / 석가불이 그림자를 흐려 眞源에 돌아가고 儀禮를 옮겨 세간을 넘으며 세상에 기록하여 형상을 가려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비추지 않고 돌아가신 지 1806년이 되었다. 이를 슬퍼하여 이 금상을 만들고자 …… 인하여 誓願을 세웠다. 오직 바라건대 비천한 사람들이 마침내 창과 방망이를 스스로 처진 어둠에서 깨쳐날 것이며 게으르고 추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에 부합하며 바라건대 …….

唐나라 咸通 6년(865) 을유년 정월 일에 신라국 漢州 북쪽 지방 철원군의 도피안사에서 불상을 만들기 위해 백사 □龍岳堅을 청하기 위해 □覓居士는 1500여 명과 인연을 맺었는데, 金石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써 힘 드는 줄을 몰랐다.<sup>23)</sup>

22) 왕권이 안정되었던 경문왕대에 임에도 국왕과 왕실의 기복 내용이 빠진 이유는 도피안사가 法相宗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郭丞勳, <新羅 下代 後期 彌勒下生信仰의 盛行과 그 意義> 《韓國思想史學》 15, 2000, 61~71쪽.

미륵불의 하생을 기대하던 기층민들에게 당시의 지배자는 필연적으로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왕권이 안정되고 왕권의 전제화를 꾀하던 경문왕대일지라도, 왕실의 기복과 추복을 앞세우는 것은 향도를 모으거나 철불을 조성하는 추동력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鄭炳三은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잔불좌상의 조상기를 ‘香徒佛銘文并序 夫釋迦佛 晦影歸眞 遷儀越世 紀世掩色 不鏡三千光歸 一千八百六載耳 慨斯怪斯 彫此金容 □ □來哲 因立願之 唯願卑姓室 遂槩椎自擊 □ □覺長昏 換庸鄙志 契眞源 恕以色莫朴 □見 唐天子咸通六年正月日 新羅國漢州北界 鐵員郡到彼岸寺 成佛之時 士□龍岳堅清 于時□ 覓居士 結緣一千五百餘人 堅金石志 勤不覺勞因’로 판독하였다. 鄭炳三, <到彼岸寺 毘盧遮那佛 造像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14~315쪽.

한편 하일식은 2005년 6월 7일 한국역사연구회 누리집(www.koreanhistory.org)에 게시한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명문 교정>에서 기존에 ‘時士’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하대 불교석조미술품의 발원자는 국왕(왕실), 귀족, 승려 등 극히 소수 계층에 국한되었다. 이들에 의해 조성된 불교석조미술품의 기원 대상 역시 국왕(왕실), 친족 등 한정적이었으며, 그 목적 역시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 2. 匠人

불교석조미술품을 직접 제작한 장인 계층은 출신에 따라 官匠·私匠·僧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4)</sup> 신라는 공적인 수공업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왕실이 주도한 불사는 관장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sup>25)</sup>

관독되던 것이 ‘伯士’라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 또한 위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한정호는 ‘成佛之侍士□龍岳堅淸于時□覓居士’으로 관독하여 ‘불상을 조성할 때에 용악의 신심 깊은 거사를 찾아’로 번역하였다. 한정호, <19. 到彼岸寺鐵造毘盧遮那佛坐像記> 《韓國金石文集成(14)》 新羅10造像銘, 韓國國學振興院·靑溟文化財團, 2012, 107~110쪽.

필자는 ‘시’ 또는 ‘시’로 본 글자에 대해 하일식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그런데 이를 ‘伯士’로 관독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淸’의 해석이 막연해질 뿐만 아니라 ‘?’가 ‘i’의 오독으로 보여, ‘淸’을 ‘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정병삼	한정호	하일식·진정환		정병삼·한정호·하일식	진정환
	時	侍	伯		淸	請(=請)

拓本 出典: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到彼岸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造像記> 拓本

24) 申龍澈은 私匠 대신 一般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71쪽.

관장이 공적인 영역을 담당한 공장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25)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71~72쪽.

사장의 경우, 왕실이 주도한 불사인 鑿藏寺 阿彌陀佛을 조성할 때 ‘명장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26)</sup> 9세기 초에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사장을 꼽자면, 鷲棲寺 삼층석탑을 조성한 石匠 神拏를 들 수 있다.

한편, 용봉사 마애불입상이 조성된 799년 전후에 등장한 승장은 9세기 중엽 이후에는 그 활약이 활발해지는데,<sup>27)</sup> 865년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한 伯士 □龍, 879년 禪房寺 石塔을 수리한 大 伯士 林典과 道如, 895년 海印寺 妙吉祥塔의 조성에 참여한 蘭交, 淸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표 1에서 통일신라시대 장인을 大 伯士, 伯士, 大 匠, 匠士, 副 匠士 등 다양하게 불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원래 관장에게나 붙이던 백사라는 칭호를 승장에게도 붙인 것인데, 이는 승계가 높은 승장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아울러 장인 집단 내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계급이 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 장사, 부장사 등의 명칭이 보이는 해인사 묘길상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E-①).<sup>29)</sup>

26)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72쪽.

27) 이처럼 9세기 중엽 이후 승장이 대두한 이유에 제작환경이 사찰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승관체계로 변화한 것에 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72~75쪽.

28)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2009, 244~245쪽.

29) 申龍澈은 승장의 직능이 匠士, 副匠士 상·하로 세분된 점으로 보아, 造塔 匠으로 僧匠이 보편화되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73쪽.

그러나 장사와 부장사로서의 분화가 승장집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승장이 보편화되었다는 증거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E-① 乾寧 2년 을묘년 7월의 雲陽臺 吉祥塔記 / 석탑은 3층으로 전체 높이가 1장 3척이다. 전체 비용은 황금 3푼과 수는 11푼과 구리 5정과 철 260칭과 숫 80섬이다. 만든 비용이 모두 租 120섬이다. 匠士는 승 蘭交와 승 淸裕이고, 副匠士는 居弗과 堅相과 具祖이다. 담당 維那는 승 性幽와 승 忍淨과 비구 釋宜이다.<sup>30)</sup>

E-② 정원 15년 기묘 사월 일에 발원하여 조성하였다. 장인(大伯士)은 元鳥法師이고, 시주(향도)는 관인 長琠大舍이다.<sup>31)</sup>

E-③ 成人은 彌刀乃未 / 정원 17년 신사 3월 16일 鴻巖에 부처를 조성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다.  
원컨대 첫 번째로 父子王과 皇戈王日彌, 두 번째로 부모, 또 일체 중생들을 ...<sup>32)</sup>

한편, 장인의 계층에 따라 불교석조미술품의 양식이 달랐던 것을 防禦山 磨崖佛立像(圖 3)과 龍鳳寺 磨崖佛立像(圖 4)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일본에 보낸 鍮銅製器物에 銘記된 爲水乃未나 芬皇寺 藥師佛을 조성한 强古乃未의 사례처럼,<sup>33)</sup> 방어산 마애

30) 鄭炳三, <海印寺 妙吉祥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37~345쪽.

寧二卯年相月 雲陽臺 吉祥塔記

石塔三層 都高一丈三尺 都費 黃金三分 水銀十一分 銅五銖 鐵二百六十秤 炭八十石 作造料并租百廿石 匠士 僧蘭交 僧淸裕 副 居弗 堅相 具祖 勾當維那 僧性幽 僧忍淨 乞士 釋宜

31) 黃壽永, 앞의 책(1999), 284쪽.

貞元十五年 己卯 四月 日 仁符□佛願 大伯士 元鳥法師 □香徒 官人 長琠大舍

32) 문명대, <방어산 마애약사삼존불상>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b, 346~347쪽.

成人 彌刀乃未 貞元十七年 辛巳 三月 十六日 鴻巖仏成記 願旨一 父子王 又皇戈皇戈王日彌 二父母彌又一切衆生□

33) 鈴木靖民, <正倉院佐波理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朝鮮學報》

불의 成人인 彌刀乃未는 관장으로 추정된다(E-②).<sup>34)</sup> 반면 용봉사 마애불은 승장인 元烏法師가 조성한 것이다(E-③).



圖 3. 防禦山 磨崖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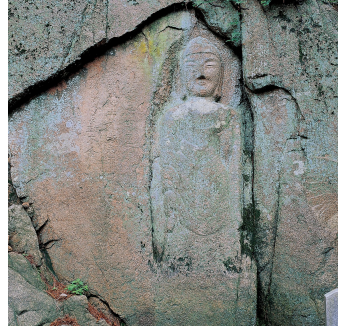


圖 4. 龍鳳寺 貞元十五年銘 磨崖佛立像

두 마애불의 규모를 살펴보면, 관장이 조성한 방어산 마애불은 402cm이고, 승장이 조성한 용봉사 마애불은 230cm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비단 규모뿐만 아니라 비례나 형태 등 양식 면에서도 두 불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sup>35)</sup> 신체의 비례 차이를 잘 보여주는 頭高: 像高의 비례가 방어산 마애불입상은 8세기 말~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慶州 栢栗寺 金銅佛立像과 유사한 1:6의 비례를 보이는 한편, 형태에 있어서도 건장함과 당당함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용봉사 마애불입상은 1:4.5~1:5의 비례를 보이며,<sup>36)</sup> 신체에 비해 머리

85, 1997, 76쪽, 註67.

《三國遺事》 卷3, 塔像4, 芬皇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又明年乙未鑄芬皇藥師銅像重三十万六千七百斤匠人本彼部 强古 乃未

34) 문명대, 앞의 논문(2003b), 347쪽.

35) 문명대, 앞의 논문(2003a), 309~322쪽; 문명대, 앞의 논문(2003b), 339~354쪽.

36) 문명대 역시 용봉사 마애불의 비례가 감산사 아미타불과 유사한 비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8세기 불상을 따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문명

가 커 오히려 신체가 왜소해 보이고, 얼굴은 양감이 풍감한 반면 신체는 밋밋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 중대의 금동불입상과 유사하지만, 부자연스러운 相好나 옷주름 등은 단순 모방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오법사는 신라 중대 금동불입상을 모본으로 용봉사 마애불입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례에서 관장은 시대양식을 주도하는 장인 계층이었다고 한다면, 승장 계층은 앞 시기 불상을 모방하는 식의 고답적인 자세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장과 사장의 이러한 차이는 석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관장이 주도한 것이 틀림없는 感恩寺址 三層石塔과 高仙寺址 三層石塔의 경우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결구 수법이 「귀틀형-판석형」이었으나, 8세기 이후에는 「귀틀형-귀틀형」과 「판석형-판석형」의 결구 수법이 더해졌다.<sup>37)</sup> 이 가운데 앞서의 두 석탑을 잇는 羅原里 五層石塔과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조성한 佛國寺 三層石塔의 하층·상층기단 결구 수법이 「귀틀형-판석형」인 것으로 보아 「귀틀형-판석형」 기법이 관장의 고유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귀틀형 혹은 판석형의 수법으로만 치석하고 조립할 경우, 한 가지만 습득해도 되기 때문에 사장의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장은 이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관장의 기술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축소시키고 세부 형식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선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 아래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갈수록 점차 석탑을 구성하는 석재의 수가 줄고 그 규모 역시 1/2정도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교석조미술품이 축소되는 경향은 승장이 본

대, 앞의 논문(2003a), 315쪽.

37) 申龍澈,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 2008, 195~224쪽.

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결구 수법이 가장 간단한 판석식이고 탕주의 수가 1주로 축소된 해인사 묘길상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승장이 조성한 석탑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원의 재원만으로 불사를 진행하면서 제한된 재원만으로 불교석조미술품을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8)</sup>

한편 2기가 있는 獐項里 五層石塔의 초층탑신 조각이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장과 사장이 각각 이 석탑 조성에 참여하였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항리 오층석탑은 초기 석탑임에도 상·하층기단이 모두 판석형으로 결구되어 있어 사장이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여, 조각의 수준 차이는 같은 사장 계층에서도 숙련도 내지는 예술적 감각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 Ⅲ. 後三國期 發願者와 匠人

명확히 후삼국기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불교석조미술품은 탑비와 승탑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철원에서 송악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 사찰을 창건한 것이나 점령지에 조성한 사찰·불탑·불상 등을 볼 때,<sup>39)</sup> 신라 하대에 이어 후삼국기의 국왕 역시 중요한 불교석조미술품 발원자였다. 그리고 889년에 조성된 英陽 蓮塘洞 石造藥師佛坐像(圖 5)에서 추정할 수 있듯,<sup>40)</sup> 호족 역시 후삼국기 불교석조미술품 조성의 중요한 발원 계층

38) 申龍澈, 앞의 논문(2009. 6), 75쪽.

39) 陳政煥,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64~74쪽.

40)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251쪽.

…元年己酉八月 佛成之所屯沙干卽中成之…

을 이루었다. 다만 이 시기 호족은 통일신라시대 귀족층보다는 좀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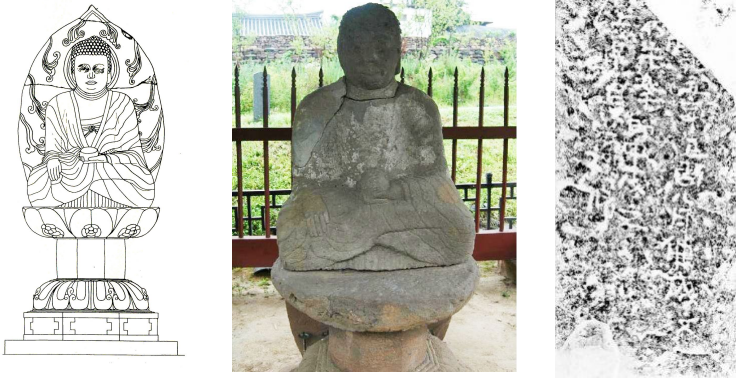


圖 5. 英陽 蓮塘洞 石造藥師佛坐像

※ 도면: 文明大, 《韓國彫刻史》(1980), 220쪽 그림 100 전재

후삼국기 왕실의 발원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조성한 사찰과 불교석조미술품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개경으로 천도한 직후 왕건은 후삼국의 통일과 민심 수습을 위해 여러 종파의 승려를 포섭하는 한편,<sup>41)</sup> 919년에는 도성 내에 法王寺를 비롯한 10寺를 시작으로 총 26곳의 사찰을 세웠다.<sup>42)</sup> 이러한 사찰에 佛殿은 물론, 석불·

연당동 석조약사불좌상 명문에 나오는 沙干(신라의 8등 관위)은 889년 이후 자립한 영양일대의 호족으로 추정된다.

41)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22, 1983, 39~54쪽.

崔滋의 《補閑集》에는 崔凝과 太祖 王建의 대화가 나오는데, 왕건의 불교 정책은 후삼국 통일을 위한 민심의 수습과 안정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補閑集》 卷上.

42) 韓基汶, 앞의 논문(1983), 54~67쪽;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석탑·석등 등 불교석조미술품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여러 僧侶의 碑文, 寺刹의 事蹟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이렇게 왕도에 세워진 사찰 가운데 佛教儀式을 거행하기 위한 사찰은 法王寺나 王輪寺 등이 대표적이며, 五冠山이나 松岳山 등에 세워진 大興寺, 廣明寺나 開城府 동쪽에 세워진 開國寺는 山川의 裨補 혹은 방어나 교통로의 거점에 조성된 사찰이다.<sup>44)</sup> 아울러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sup>45)</sup> 龍州 점령 후 조성한 醴泉 東本洞 石佛立像과 石塔, 931년 小白山寺(毘盧寺)를 중수하면서 조성한 毘盧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의 경우처럼 고려의 새로운 점령지에 고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불교석조미술품도 있다.<sup>46)</sup>

民族社, 1998; 金昌賢,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9, 2008. 3, 114~126쪽.

- 43) 李炳熙, <高麗時期 伽藍構成과 佛教信仰> 《文化史學》 11·12·13, 1999. 12, 687~711쪽.
- 44) 박운진은 개경일대 사원의 군사적·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사원이 종교적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는데, 후삼국기 창건된 사원은 이러한 성격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운진, <高麗時代 開京 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的 性格> 《韓國史學報》 3·4, 1988, 78~119쪽.
- 45) 開泰寺는 後三國을 統一한 뒤 곧바로 有司에 명해 세운 寺刹이며, 낙성 華嚴法會에서 고려 태조가 친히 發願文을 짓기도 하였다. 특히 이 곳에서는 장대한 石造三尊佛, 高麗 最大의 金銅塔과 靑銅金鼓가 조성되었다.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美術資料》 21, 1981, 1~10쪽; 金春實, <忠南 連山 開泰寺 石造三尊佛考> 《百濟研究》 21, 1990, 321~347쪽.
- 46) 후삼국기 고려의 불교조각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陳政煥, 앞의 논문(2013), 64~74쪽.  
 열거한 여러 불상 가운데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같이 봉안되어 있는 석조아미타불좌상과 연관시켜 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文明大, <毘盧寺 石造毘盧阿彌陀二佛像의 考察> 《高古美術》 136·137, 1976, 126~133쪽.

고려의 경우처럼, 태봉이나 후백제에서도 불교제의를 위해서나 王京 인근의 주요 방어 및 교통 거점의 비보를 위해, 혹은 국가의 통합이나 정복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석조미술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삼국기의 국왕이 발원한 불교석조미술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발원 목적은 호족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과 개인의 기복과 추복을 바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발원 목적이 주를 이루었던 통일신라시대와 달리, 후삼국기는 혼란기였던 만큼 왕도의 안녕이나 번영을 우선시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表 2. 高麗 太祖 創建 寺刹<sup>47)</sup>

寺名	創建年代	位置	備考	寺名	創建年代	位置	備考
法王寺	919	都內	八關會	王輪寺	919	都內	煙燈會
內帝釋院	919	都內	帝釋信仰	普濟寺	919	都內	談禪大會
文殊寺	919	都內		新興寺	919	都內	三韓功臣願堂
舍那寺	919	都內		地藏寺	919	都內	
慈雲寺	919	都內		靈通寺	919	都內	
大興寺	921	五冠山		廣明寺	922	松岳山	
日月寺	922	宮城西北		外帝釋院	924		
九曜堂	924		道教行事	慎重院	924		
興國寺	924	京城	官壇	智妙寺	927		申崇謙·金樂願堂
龜山寺	929	松岳山		安和禪院	930	松岳山	大匡王信願堂
開國寺	933	開城府東五里		廣興寺	936		
內天王寺	936			現聖寺	936	炭峴門內	
彌勒寺	936		功臣願堂	開泰寺	936	連山	

그러나,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은 양식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석조아미타불좌상은 8세기 후반~9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陳政煥, <慶北 北部地域 羅末 佛像에 對한 考察> 《新羅文物研究》 5, 2011, 22쪽.

47) 表 2는 《高麗史》와 《三國遺事》 王歷篇 高麗 太祖에 등장하는 寺院을 정리한 것이다. 韓基汶, 앞의 논문(1983), 66쪽, 表 II 참조.

한편, 후삼국기 불교석조미술품 장인의 성격을 밝혀줄만 한 자료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후백제 견훤이 경주를 침공하였을 때 百工 가운데 뛰어난 자를 끌고 온 것,<sup>48)</sup> 후백제 비보사찰인 전주(완주) 鳳林寺址 石佛坐像 조성에 안동지역의 장인이 참여한 것,<sup>49)</sup>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세운 후에도 명주지역의 장인이 철원의 불교석조미술품 조성에 참여한 것,<sup>50)</sup> 충주지역 장인이 開泰寺 石造三尊佛 조성에 참여한 것<sup>51)</sup>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삼국 간의 전투 결과에 따라 이동이 빈번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인의 빈번한 이동은 통일신라시대 불교석조미술 양식과는 다른 후삼국 불교석조미술 양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高麗 前期 發願者와 匠人

### 1. 發願者

고려 태조 왕건은 건국 직후부터 개경의 10寺, 豊基 小白山寺나 連山 開泰寺 등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불사를 주도하였다.<sup>52)</sup>

48)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嗣立然後虜王弟 孝廉 宰相 英景 又取國帑珍寶兵仗子女 百工之巧者自隨以歸

49) 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2010, 6, 173~180쪽.

50) 丁晟權, 《高麗 建國期 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42~50쪽.

51) 최성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美術史論壇》 16·17, 2003, 96~99쪽.

52) 고려 태조가 개경의 여러 사찰과 개태사를 세운 내용은 《高麗史》에서

특히 광종은 개경 인근에 대봉은사, 불일사, 귀법사, 홍화사 등 많은 사찰을 창건하는 한편으로 灌燭寺 석조보살입상 조성 시 慧明을 비롯한 중앙에 소속된 장인을 파견한 사례(F-①)로 볼 때,<sup>53)</sup> 왕건의 뒤를 이은 고려의 국왕 역시 개경은 물론 지방에까지 많은 불사를 주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의 귀족과 승려는 통일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불교석조미술품 발원 계층이었다. 귀족이 발원한 대표적인 불교석조미술품은 姜邯贊(948~1031) 발원의 開城 興國寺 石塔(F-②)을 들 수 있으며, 승려가 발원한 것은 獅子頻迅寺址 四獅子石塔(F-③)과 僧伽寺 僧伽窟 石佛坐像光背(F-④)가 대표적이다.

F-① 고려 光宗 19년 기사년(969년)에 沙梯村의 여인이 盤藥山 서북쪽 골짜기에서 고사리를 캐는데 홀연히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려서 이윽고 나아가 보니 땅속에서 커다란 바위가 솟아 나오는 것이었다. 마음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돌아와서 그 사위에게 말을 하니 사위가 곧바로 관아에 고하고 관아는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백관에게 명하니 회의를 하니 아뢰기를 “이는 불상을 만들라는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尙醫院에 명하여 팔도에 사신을 보내 널리 불상을 만드는 장인을 구하게 하였다. 승 慧明이 추천에 응하고 조정은 장인 백여 명을 골라서 경오년(970년)에 일을 시작하여 병오년(1006년)에 일을 끝마치니 무릇 37년이 걸렸다.<sup>54)</sup>

확인할 수 있다. 고려 태조가 소백산사를 중창한 내용은 <毘盧寺 真空大師 普法塔碑>에서 살펴볼 수 있다.

53) 《高麗史》 卷2, 世家2, 光宗.

54) 朝鮮總督府 編, <恩津灌燭寺事蹟碑> 《朝鮮金石總覽》 下, 朝鮮總督府, 1919, 1153~1155쪽.

稽古高麗光宗之十九年己巳沙梯村女採蕨于盤藥山西北隅忽聞有童子聲俄而進見則有大石從地中聳出心驚怪之歸言其女壻壻即告于本縣自官覈秦上達命百官會議啓曰此必作梵相之兆也令尙醫院遣使入路數求掌工人成梵相者僧慧明應舉朝廷擢工匠百餘人始事於庚午訖功於丙午凡三十七年也

F-② 菩薩戒弟子인 平章事 姜邯瓚은 삼가 받들어 우리나라가 영원히 泰平하며 먼 곳과 가까운 곳이 항상 平安토록 하기 위하여 공손히 이 塔을 造成하여 영원토록 供養하고자 한다. 이 때는 天禧 5년(1021년) 5월 일이다.<sup>55)</sup>

F-③ 佛弟子 高麗國 中州 月岳山 獅子頻迅寺의 棟梁은 삼가 받듭니다. 대대로 聖王께서 항상 萬歲를 누리시고, 天下가 太平해지고, 法輪이 항시 傳해져서, 이 지역 저 지방에서 영원히 冤敵이 소멸된 이후 우연히 사娑婆 세계에 태어나서, 이미 花藏迷生을 알았으니, 곧 正覺을 깨우칩니다. 삼가 공손히 9층 석탑 1坐를 造成하여 영원토록 供養하고자 합니다. 太平 2년(1022, 현종 13) 4월 일에 삼가 기록합니다.<sup>56)</sup>

F-④ 太平四年甲子歲秋月莫開□□□ 棟梁釋智光 副棟梁釋成彥 磨琢者釋光儒 釋慧□□□ 鐵□□□丘<sup>57)</sup>

表 3. 高麗 前期 石造美術品の 發願者와 匠人

名稱	造成 時期	發願者	發願 目的	匠人	備考
太平興國銘 磨崖菩薩坐像	太平興國 6年 (981)	道俗 香徒			
舒川 芝峴里 三層石塔	淳化 2年 (992)	戶長 鄉長 縣長	爲國		

55) 許興植 編著, <開城興國寺石塔>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441쪽.

菩薩戒弟子平章事姜 邯瓚 奉爲 邦家永泰遐邇常安敬造此塔永充 供養 時天禧五年五月 日也

56) 許興植 編著, <堤川獅子頻迅寺址石塔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454~455쪽.

佛弟子高麗國中州月岳師子頻迅寺棟梁奉爲 代代聖王恒居萬歲天下大平法輪常傳此界他方永消怨敵後愚生娑婆既知花藏迷生即悟正覺 敬造九層石塔一坐永充供養 大平二年四月日謹記

57) 許興植 編著, <僧伽寺石像>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460~461쪽.

太平二年銘 磨崖佛	太平 2年 (977)		今上皇帝(景宗)		
安城 長命寺 石塔誌	統和 15年 (997)	戶長 安帝京 金正 崔□	國泰人安顯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誌	統和 27年 (1005)	靈岳縣 戶長 朴文英	國家 平安		
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統和 27年 (1009) ~ 統和 27年 (1011)	僧侶·俗人·善娘 彌勒香徒 椎香徒 棟梁 戶長 林長 崔祐 母主 副棟梁 邦祐	부처 恩惠 報答 爲國 功德		
開成 興國寺 石塔	天禧 5년 (1021)	平章事 姜邯贊	나라 太平 遠近平安		
高興 上林里 三層石塔	天禧 5年 (1021)	棟梁 □慕 寶任 士庶	聖壽天長 國泰民安 法輪常轉		
太平銘塔	太平 2年 (1022)	□師	聖壽天長 國泰民安 法輪常轉		
獅子頻迅寺址石塔	太平 2年 (1022)	獅子頻迅寺 僧侶 □師	聖王 萬歲 天下泰平 法輪常轉 등		
茸長寺址 磨崖如來坐像	太平 2年 (1022)	阿(尉)□			
漆谷 淨兜寺址 五層石塔	太平 11年 (1031)	釋 智漢	國家 平安 戰爭 消滅 百穀 豐盛		
普賢寺 石塔	1044年?		皇帝布德 百姓平安		
僧伽窟 石造坐像光背	太平 4年 (1024)	棟梁 釋 智光 副棟梁 釋 成言		磨琢者 釋 光儒 釋 慧□□□ 鐵□□□(丘) 鐵=鐵 鐵匠?	
羅州 西門 石燈	大安 9年 (1093)		聖壽天長 穀食 豐年 羅州 平安 富貴		
國立光州博物館 石燈	戊辰年 (1088 推定)	棟梁 乘善 消皆	聖壽天長 五穀 豐年 百姓 平安		

한편 고려 전기에는 앞서 언급한 국왕, 귀족, 승려와 더불어 ‘戶長’으로 지칭되는 계층이 불교석조미술품의 새로운 발원 계층으로 등장한다. ‘長吏’로도 불리는 ‘호장’은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大等, 堂大等과 같이 중앙의 관위를 받는 지방의 호족이었으나, 983년 成宗의 吏職 개편 이후 국가체제 안에 완전히 편입되었다.<sup>58)</sup>

호장은 지역의 조세와 공부를 중앙으로 전달하거나 지역민을 동원하여 각종 役事를 실행하거나 유사시 지역민을 거느리고 자신의 관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투지휘관이 되기도 하였다.<sup>59)</sup> 뿐만 아니라 성황제 등 각 군현의 제사나 각종 불교 의례를 주도하기도 하였다.<sup>60)</sup> 그럼에도 지역의 지배자라기보다는 국왕의 대리자 역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삼국기나 고려의 호족과는 그 위상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불사와 관련된 호장의 위상 역시 후삼국기나 고려 초기와는 변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圖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上臺面石에는 棟梁으로 戶長 林長을 비롯한 3명과 副棟梁으로 邦右가 기록되어 있으나, 上臺甲石에 새겨진 명문에는 彌勒香徒 36명, 樵香徒 40명, 光軍에 속했던 50명은 물론이고 불사에 참여하였던 승려, 속인, 여인 1만 명을 언급하고 있다(G-①). 상대면석에 4명만 銘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갑석에 새겨진 미륵향도, 추향도, 광군, 僧俗娘 1만 명 즉 군민 전체가 이 불교석조미

58)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 員外郎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筵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59) 김갑동, <고려시대의 戶長> 《韓國史學報》, 1989. 9, 214~215쪽.

60) 한기문,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복원사림》 29, 2011, 45~55쪽.

숯품 발원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漆谷 淨兜寺址 五層石塔 (圖 7) 표면에 새겨진 釋知漢은 形止記에 등장한 戶長層과 수많은 僧俗의 대표자로 명기된 사례로 볼 때,<sup>61)</sup> 일부 불교석조미술품에 명기된 보이는 호장은 실질적으로는 郡甸民이 참여하는 ‘거군(현)적 향도 결사’의 대표자로서 명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2)</sup>



圖 6. 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圖 7. 漆谷 淨兜寺址 五層石塔

61) 許興植 編著, <淨兜寺五層石塔>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473쪽.

釋知漢 特爲家國恒安兵戈永息百穀豐登敬造此塔永充供養 太平十一(□末)正月 日願

申虎澈, <高麗 顯宗대의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註解>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589~590쪽.

62) 향도는 불상·석탑·사찰의 조성, 法會의 施主 등 신앙행위를 위한 佛教信仰結社體이다.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의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 2, 1989, 88~97쪽.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李泰鎭, <士林派의 留鄉所復興運動>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127쪽.

983년 이후 호장이 새겨진 불교석조미술품, ‘거군(현)적인 향도결사’가 발원한 불교석조미술품은 舒川 芝峴里 三層石塔(G-②), 安城 長命寺 石塔(G-③),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등이 대표적이다.

G-① 棟梁은 戶長 陪戎校尉 林長, 崔祐, 母主이고, 副棟梁은 □□·邦祐이다. 사망으로 널리 몸과 마음을 위하여, 위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를 위하고 공덕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일체의 만물에 퍼지게 하기 위하여 辛亥年 4월 8일 세웠다. 上元 甲子 이후 47년 후인 統和 27년 庚戌年 3월 3일 光軍 46隊, 수레 18대, 소 1000과 10間이 들어갔다. 승려·속인·선랑 모두 1만 인이었다. 彌肋香徒에서는 上秤에 神廉長, 長司에 正順, 行典에 福宣·金由·工達·孝順, 位剛에 香德·貞岳 등 36명. 椎香徒에서는 上秤에 京成, 仙郎에 光叶·金叶, 阿志, 大舍에 香式·金哀·位奉·楊寸·能廉 등 40인. 隊正 邦祐, 其豆·昕京, 位剛에 儻平·矣典·次衣 등 50명.<sup>63)</sup>

G-② 淳化二年歲次辛卯二月日 爲國發願造塔記 時戶長 見鄉長 見縣長 信元長 潤別長 昕久長<sup>64)</sup>

G-③ 統和十五年□□四月二十七日國泰人安願以長命寺五層石塔造立香徒姓名如後棟梁大明行徒□尉戶長安帝京金正崔□伯士禮靈

63) 許興植 編著, <醴泉開心寺石塔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433~434쪽.

棟梁戶長陪戎校尉林長崔祐母主副棟梁□□邦祐 弘爲身上報之佛恩爲國正功德普及於一切辛亥四月八日立

上元甲子四十七統和二十七庚戌年二月一日正骨開心寺 到石析三月三日 光軍式六隊車十八牛一千以十間入矣僧俗娘合一萬人了入彌肋香徒上秤神廉長長司正順行典福宣金由工達孝順位剛香德貞岳等卅六人椎香徒硯京成仙郎(光叶金叶)阿志大舍香式金哀位奉楊(能廉寸等)(隊正邦祐)其豆昕京位剛儻平(矣典)次衣等五十人

64) 黃壽永, <韓山芝峴里三層石塔銘> 《黃壽永全集 4 金석유문》, 혜안, 1999, 234~235쪽.

□□□ 金位等料色光□師玄肯 鑰匠只未知<sup>65)</sup>

한편, 호장을 중심으로 한 거군(현)적 향도결사가 발원한 불교석조 미술품은 表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왕과 국가의 안녕’과 ‘군현의 평안’을 발원 목적으로 하였다.<sup>66)</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와 군현의 평안을 내세운 舒川 芝峴里 三層石塔, 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高興 上林里 石塔, 漆谷 淨兜寺址 五層石塔 등의 조성시기가 거란과의 전쟁 중이거나 전쟁 직후라는 점이다. 이는 곧 전란의 시기에 거군(현)적 향도가 주도한 불교석조미술품 등의 佛事로써 지역사회의 통합하려 하였던 고려 왕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고려 전기의 군(현)민이 모두 참여하는 향도결사는 무신정권 이후 대규모 流離民의 발생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됨에 따라 그 규모나 성격이 바뀌는데, 高官으로만 이루어진 향도, 여성만으로 구성된 향도, 향촌의 小民들만이 참여하는 향도와 같은 소규모 향도결사로 축소되었으며, 재회·소향·장례부조 등의 활동 사례가 두드러졌다.<sup>67)</sup>

그런데 고려 전기에 군(현)민 전체가 참여하는 향도결사가 성행한 이유를 단순히 거란과의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거란의 침입보다 길었던 대몽항쟁기에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읍치의 비보사원이자 국가 불교의례가 행해졌던 資福寺<sup>68)</sup>의 조성과 함께 불교석조미술품으로써 산천을 비보하는 國家裨補思想이다.

65) 黃壽永, <淳和銘安城長命寺址石塔誌>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해안, 1999, 216쪽.

66) 蔡雄錫, 앞의 논문(1989), 104쪽.

67) 蔡雄錫, 앞의 논문(1989), 116쪽.

68) 韓基汶, <高麗時代 裨補寺社の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0, 272~282쪽.

자복사는 읍치와 가까운 곳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sup>69)</sup> 계수관, 주현, 속현은 물론이고 향·소·부곡에 1곳 이상의 자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0)</sup> 그런데 성종과 현종대의 지방 통치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자복사의 新創 및 重創되었기 때문에 고려 전기 거군(현)적인 향도결사에 의한 불교석조미술품 조성이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1)</sup>

한편, 고려시대에는 풍수도참설의 영향으로 산천의 비보를 위한 사찰·석불·석탑·당간·석등 등을 조성하였다(H-①, ②). 이 경우는 군(현)민 전체를 포괄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군(현)적인 향도결사가 불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H-① 부처의 도를 약썩으로 삼아 산천의 병든 땅을 치료하십시오.  
 결함이 있는 땅은 사찰을 창건해 보완하고, 지세가 과도한 곳은 불상으로 누르며, 달아나는 곳은 탑을 세워 머무르게 하고, 등진

69)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281~283쪽.

70) 한기문, 앞의 논문(2011), 279~324쪽.

71) 자복사라는 명칭이 탐산사 동종에 새겨져 있는데, 이 종은 993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고려 성종대부터는 자복사라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기문, 앞의 논문(2011), 284쪽.

최연식은 기존에 고려 동종으로 추정된 탐산사 동종이 만력 21년 즉 1593년에 조성한 조선의 동종이며, ‘계사년’ 이하의 명문은 다른 종 즉 어산향 자복사 동종의 명문을 옮겨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계사년을 933년으로 파악한 이유는 향·소·부곡의 장리를 호장으로 칭하던 983년부터 1022년 사이에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최연식, <海南 大興寺所藏 ‘塔山寺銅鐘’ 銘文의 재검토> 《木簡과 文字》 6, 2010, 181~184쪽.

이렇게 자복사라는 명칭이 성종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앞선 시기에 도 태조의 《훈요십조》에 따라 각 읍의 비보, 불교의례를 위한 사찰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56년 퇴화군의 한 사찰의 종을 주조하면서 새긴 명문에 ‘퇴화군대사’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자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군대사’, ‘군사’ 등의 명칭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땅은 당간으로써 불러들이며, 해치려드는 것을 방지하고, 다투려는 것을 금지시키며, 좋은 것은 복돋아 키우고, 길한 것은 선양하게 하니, 천하가 태평하고 법륜이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다.<sup>72)</sup>

H-② 청바위가 우뚝 선 곳은 지맥이 둘째 번 순룡의 폐간에 해당되는데,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으니 이것은 삼재가 일어날 곳으로, 만약 삼재를 없애려면 마땅히 석당을 세워야 한다고 하자, 양지쪽 벼랑의 큰 돌 위에다가 돌기둥을 사방에 벌여 세워 집 모양 같이 하고, 長明燈을 설치하여 청바위의 재앙을 누르고...<sup>73)</sup>

향도결사는 미미했던 신라 하대 시기와 달리 고려 전기에는 불교석조미술품 발원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고려 전기의 향도결사는 성종대 있었던 문물의 정비에 따른 읍치의 정비-자복사 조영 및 산천비보를 위한 불교석조미술품 조성-가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와 함께 거란의 침입이라는 외적 요인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읍치의 정비가 마무리 된 고려 중기 이후의 향도결사가 소규모로 변모하였다.

## 2. 匠人

고려 초 불교석조미술품 장인의 수급은 그 앞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963년에 조성된 古彌縣 西院의 銅鍾을 제작한 장인을 신라 하대처럼 大伯士, 伯士로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 전기 체제정비 이후에는 조선시대처럼 법에 의해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무산직 혹은 무

72) 朝鮮總督府, 《白雲山內院寺事蹟》 상, 중앙일보사, 1968, 18~19쪽.

73) 《東文選》 卷79, 記, 五冠山聖燈庵重創記.

산계 전시를 수여받은 일군의 직역층 장인과 역의 수행과 사적인 영리활동을 번갈아 하는 부역층 장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74)</sup> 아울러 직역층과 부역층을 막론하고, 고려시대 장인들은 ‘大匠’, ‘大匠尉’, ‘副大匠’ 등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sup>75)</sup> 장인 계층 내 위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I-①, ②).

I-① 太平 12년(1032년) 壬申 12월 모일. 靑龍大寺의 종이다. 무게는 160근이다. 大匠位는 金慶明, 棟梁은 元吉 등 14명이다. □□ 阮賢 등.<sup>76)</sup>

I-② 淸寧 11년(1065년) 乙巳年 3월 일. 戒持寺의 金鐘을 주조하여 만들었다. 무게는 150근이다. 棟梁은 寺主 大師 智觀, 大匠은 金水, 副大匠은 □□ 未亭이다.<sup>77)</sup>

통일신라의 경우 국가(왕실)이 발원한 불사의 장인에게 工價가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sup>78)</sup> 고려시대 장인은 국가의 수취제도 아래 편입

74) 徐聖鎬,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 《韓國史論》 27, 1992, 89~130쪽. 한편, 공장을 구분하는 명칭은 官匠과 독립수공업자로 구분하거나, 관속공장과 비관속공장, 경공장과 외공장 그리고 직역층과 부역층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중앙이나 지방관청에 전속된 공장을 관공장으로, 그 외는 사공장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全暎俊, <高麗後期 供役僧과 寺院 造營組織> 《韓國史學報》 20, 2005. 7, 84쪽, 註 13.

75) 徐聖鎬, 앞의 논문(1992), 106~111쪽.

76) 黃壽永, <靑靑大寺鐘>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혜안, 1999, 330~331쪽.

太平十二年壬申十二月日靑靑大寺鐘百七十斤大匠位金慶則棟梁元吉十四人戶長阮賢等

77) 黃壽永, <戒持寺鐘>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혜안, 1999, 332~333쪽. 維淸寧十一年(乙巳)三月日戒持寺金鐘鑄成入重百五十斤棟梁寺主大師智觀大匠金水副大匠□□未亭

78) 무장사 아미타여래 조상 사적비에 ‘中宮이 ... 9부의 깨끗한 재화로 이름

됨에 따라 국가나 군현에서 벌어진 불사에는 役의 일환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의 불사에 참여하였던 장인이 향리로 내려가 거군(현)적인 불사를 주도한 경우가 있었을 것인데, 이때 남계원 칠층석탑과 같은 고려시대 신앙식 석탑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처럼 고려의 중앙양식이 지방에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9)</sup> 부역층 장인에 의해 지방의 불교석조미술 양식이 중앙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평양지역의 팔각대좌형식 석탑 기단이 개경의 흥국사 석탑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다시 익산 사자암 석탑에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 미술 양식이 지방에서 발생하여 중앙으로 영향을 끼치고 다시 지방에 확산되는 하나의 구조(지방→중앙→지방)를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전기 승장의 활동 양상은 <淨兜寺 五層石塔 形止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80)</sup> ‘伯士’라는 칭호가 붙은 정원이 있으나 석탑 조성의 책임자 혹은 공장승의 우두머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인 역을 담당하였던 이들은 善州 集拒院 所屬 工匠僧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sup>81)</sup> 工匠僧은 사원에 소속된 隨院僧徒였다.<sup>82)</sup> 고려시대 평민 출신의 수원승도는 白丁보다 천시되었고 소속된 사원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조형양식의 습득이 어려워 공장승들은 인근 지역에 있는 앞 시기 불교석조미술품의 모방과 재현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sup>83)</sup> 고려 전

난 장인을 불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공가를 지급하는 대상이 사장만이 아니라 관장과 승장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9) 陳政煥, 앞의 논문(2013), 93~133쪽.

80) 申虎澈, 앞의 논문(1994), 569~593쪽.

81) 개경 나성 축조에 동원된 관리들과 승속의 공장에게 계직이 수여된 사례가 있다.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1年 6月 辛卯.

82) 임영정, <高麗隨院僧徒再考> 《東國史學》 37, 2002, 310~314쪽.

83) 국가 주도의 불사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조

기 불교석조미술품 가운데 통일신라 혹은 삼국시대 불상이나 석탑을 모방한 것들이 조성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장승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신집권기와 몽고의 침입 이후, 불사의 목적이 개인적인 것으로 변함에 따라 개인발원의 불사가 확대되면서 私匠의 활동이 활발해졌다.<sup>84)</sup>

## V.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樣相과 意義

신라 하대에 조성된 불교석조미술품의 발원자를 살펴보면,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이나 용봉사 마애불입상 등 향도결사가 발원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왕(왕실)·귀족·승려 계층이었다. 후삼국기에는 군주와 함께 귀족을 대체한 호족이 주요 발원 계층이 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앞 시기, 즉 신라 하대와 후삼국기의 전통적인 발원 계층이었던 국왕(왕실)·귀족·승려가 계속해서 불교석조미술품 발원을 주도하는 한편, 戶長을 대표로 하는 거군(현)적인 향도결사가 불교석조미술품의 발원자로 부각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국왕(왕실)·귀

---

성에 참여한 慧明은 관촉사 이외에도 강원도 명주사와 거둔사 불사에도 참여 하였다.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研究> 《미술사연구》 14, 2000. 12, 10~15쪽.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恩津縣.

在般若山 有石彌勒 高五十四尺 世傳 高麗光宗朝 般若山麓有大石湧出 僧慧明 琢成佛像

이로 미루어 볼 때, 국가에 소속된 장인은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면서 중앙양식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4) 최응천, <고려시대 金屬工藝의 匠人> 《美術史學研究》 241, 2004. 3, 173~175쪽.

죽·승려를 중심으로 개인 발원과 소규모 향도결사 주도의 불사가 성행하였다.

발원 계층의 변화가 발원 목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열의 봉합과 전란의 종식 등 당면 과제가 있었던 후삼국기를 제외하면, 발원 목적 역시 발원 계층과 마찬가지로 고려 전기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후삼국기와 고려 전기 이외의 불교석조미술품은 대부분 개인의 기복과 추복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신라 하대 해인사 묘길상탑처럼 다수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할지라도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기복과 추복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 물론 고려 전기에도 개인의 기복과 추복을 위해 불교석조미술품을 조성하였는데, 962년에 만들어진 청주 용두사 철당간에서 살펴볼 수 있다(J-①).

J-① 堂大等 金芮宗이라는 이가 있으니 고을의 큰 가문이요 지방의 손꼽히는 집안이다. 우연히 병에 걸려 문득 부처와 하늘에 약속하기를, 우러러 철당간을 삼가 만들기를 빌고, 엎드려 훌륭한 사찰을 장엄할 것을 맹서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멈추기 어렵고 죽음에 빠지기는 쉬워 그 사이에 몇 년이 늦어지고 때는 쉽게 멀어졌다. 이때에 중형인 당대등 金希一 등이 저쪽에서 돌이킨 서원이 되게 하고 이쪽에서 끊어진 인연을 이어 마침내 30단의 철통을 주조하게 하고 이어 60척의 幢柱를 세웠다.<sup>85)</sup>

그런데 성종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이직의 개편 이후, 거군(현)적 향

85) 許興植 編著, <淸州龍頭寺鐵幢竿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374~376쪽.

堂大等金芮宗者也州里豪族鄉間冠族偶因染疾忽約佛天仰祈則敬造鐵幢俯擔則莊嚴玉剎然而難停逝水易沒黃泉已間數歲遲延隔時容易於時從兄堂大等正朝賜丹銀魚袋金介一等彼爲還願此繼頽釋令鑄成三十段之鐵筒連立六十尺之幢柱

도결사가 발원한 불교석조미술품은 통일신라 불교석조미술품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기원 내용인 국왕의 장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가태평’, ‘전쟁종식’, ‘백성평안’, ‘오곡풍년’ 등 개인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웠다. 거군(현)적이 향도결사가 발원하고 읍치의 비보를 위한 자복사 등에 조성한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表 4. 統一新羅~高麗時代 發願階層과 目的의 變化 樣相

	통일신라	후삼국기	고려 전기	고려 중기~말
발원 계층	국왕(왕실) 귀족 승려	군주 호족	국왕(왕실) 귀족 승려 거군(현)적 향도	국왕(왕실) 귀족 승려
발원 목적	개인 기복 망자 추복	후삼국 통일 등 정치적 목적	위국 성수천장 국태민안 읍지평안 오곡풍년 전쟁소멸	무병장수 재앙소멸 정토왕생

무신집권기와 몽고의 침입을 겪은 이후에는 ‘통치 구조 및 조직의 변화’, ‘신분제의 동요’, 그에 따른 ‘농민과 천민의 붕기’ 등의 영향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개인 중시 문화의 영향으로 불교석조미술품 발원의 목적이 통일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무병장수’, ‘재앙의 소멸’, ‘정토왕생’ 등 또 다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변모한다.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발원 계층과 목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거군(현)적인 향도결사가 주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교석조미술품이 많이 조성되었던 고려 전기야 말로 불교가 대중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인의 수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려 전기 불교석조미술품의 양식이 다변화된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석조미술품 구성에 관장·사장·승장 등 다양한 계층이 불교석조미술품 구성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기술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분화되었는데, 관장이 시대 양식을 창조하였다면, 사장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승장은 관장과 사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기술적 한계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축소·변형시켜 소위 ‘僧匠樣式’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불교석조미술품 양식을 만들었다.

고려 전기에는 부역층이 번차제에 따라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군현으로 돌아가 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고려 중앙의 신앙식이 전국으로 확산되거나, 지방의 특수한 형식과 양식이 중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도사지 오층석탑 조성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특정 사찰의 隨院僧徒에 소속된 공장승은 고려의 공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동에도 제약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불교석조미술품, 예컨대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석탑과 같은 백제 석탑이나 신라의 일반형 석탑을 모방·재현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고려 전기 특정 지역에만 등장하는 지방양식이나 복고양식의 성립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도결사 가운데 노역을 제공하는 집단이 있었는데,<sup>86)</sup> 개

86) 《三國遺事》 卷5, 感通7, ‘郁面婢面佛西昇’條에 의하면, ‘향도 일 천명을 모아 두 패로 나누었는데, 한패는 일을 하고, 한패는 도를 닦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향도에도 두 집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구성에도 미륵향도와 추향도 두 집단이 등장한다. 추향도의 ‘추’는 ‘椎鑿’의 약자로 추정되므로 노역을 담당하였던 집

심사지 오층석탑에 참여한 추향도나 정도사지 오층석탑 1차 조성 시 석재 다듬는 일에 참여하였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불교미술품의 조형 원리나 도상, 결구의 원칙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불사에 참여한 고려 전기의 불교석조미술품에서 예천 개심사 오층석탑 십이지신상의 방위가 틀어진 것<sup>87)</sup>과 같은 부조화나 도상적 오류를 찾을 수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좁게는 신라 하대~고려 전기, 넓게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불교석조미술품 발원자와 장인의 변화 양상이 불교석조미술품의 확산 더 나아가 불교의 대중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일신라시대나 고려 중기 이후와 달리 거군(현)적 향도의 발원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발원 목적 역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모한 불교석조미술품이 많이 조성된 고려 전기야 말로 불교

---

단으로 추정된다. 미륵향도의 ‘미륵’은 이 석탑 조성의 정신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용어로, 직접적인 노력보다는 각종 물자를 시주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연수, <고려 현종대의 예천군과 칠곡군-고려 전기 개경정부의 지방지배 전략과 지방사회의 변화-> 《호서사학》 36, 2003. 12, 52~56쪽.

- 87) 하층 기단 면석에는 십이지신상이 새겨져 있는데, 북면 하층 기단 면석에 새겨진 십이지신상의 순서가 오른쪽부터 子像-丑像-寅像인 점이 눈에 띈다. 십이지신상은 시간과 방위의 상징으로 통일신라시대 불교석조미술품은 물론 고려시대 불교석조미술품에서 亥像-子像-丑像의 순으로 자상이 正北에 위치한다. 이러한 오류는 이 석탑에 참여한 장인들이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대중화되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전기가 통일신라 혹은 고려 중기 이후와 다른 면모를 정리하면, 첫째, 개인의 기복과 추복을 목적으로 한 통일신라와 고려 후기 불교석조미술품과 달리 거군(현)적 향도가 주도한 고려 전기 불교석조미술품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발원의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소규모 향도와 달리 바라는 바가 다양한 조직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을 내세운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둘째, 고려 전기는 향도 주도의 불사가 활발했던 시기이다. 고려 전기의 향도는 통일신라시대 향도와 달리 거군(현)적 향도결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계층에 따라 세분화되고 소규모화 된 고려 후기 향도와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거군(현)적 향도결사는 동일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왕조의 출현 이후에도 통일신라 불교석조미술품을 계승한 전통양식 불교석조미술품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삼국시대 불교미술품을 모방·재현하고자 한 복고양식의 불교석조미술품의 조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고려 전기의 향도는 주로 석탑·불상 등 대규모의 불사를 주도한 반면, 고려 후기의 향도는 신앙의례 활동과 소규모 불구제작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향도결사의 규모, 활동 내용의 변화와 고려 전기의 괴체적이고 규모가 큰 불교석조미술품이 고려 후기에 괴체감이 상실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과 일치한다. 물론 큰 규모의 불사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대규모 향도가 조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신집권과 몽고의 침입 이후 신분에 상관없이 출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향도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불교석조미술의 조성 자원 마련에도 영향을 끼쳐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 고려 전기에 장인에 대한 관리체제, 즉 부역층 장인의 번차제와 수원승도제의 확립에 따라, 다양한 불교석조미술품 양식이 출현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지방에서는 불교석조미술품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을 활동기반으로 한 공장승이 불사에 참여하면서, 통일신라 불교석조미술품을 계승하거나, 삼국시대 불교석조미술품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부역층 장인에 대한 번차제는 중앙의 불교석조미술양식을 접한 장인에 의해 신앙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함께 신앙식-전통양식, 신앙식-복고양식, 전통양식-복고양식 간에 절충양식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참고문헌】

### 1. 사서·지리서·문집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補閑集》  
《東文選》

### 2. 저서 및 보고서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  
院, 1992.

慶南文化財研究院 《泗川 船津里城 整備事業敷地內 發掘調査 概要》, 慶南文化  
財研究院, 2004. 6.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2009.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0.

朝鮮總督府 編, <恩津灌燭寺事蹟碑> 《朝鮮金石總覽》 下, 朝鮮總督府, 1919.

朝鮮總督府, 《白雲山內院寺事蹟》 상, 중앙일보사, 1968.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許興植 編著, <開城興國寺石塔>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黃壽永,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해안, 1999.

### 3. 연구 논문

姜在光, <文聖王代의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的 정치적 배경> 《한  
국고대사탐구》 7, 2011. 4.

고연수, <고려 현종대의 예천군과 칠곡군-고려 전기 개경정부의 지방지배 전략  
과 지방사회의 변화-> 《호서사학》 36, 2003. 12.

- 郭丞勳, <新羅 下代 後期 彌勒下生信仰의 盛行과 그 意義> 《韓國思想史學》 15, 2000.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 166·167, 1985.
- 金在弘, <新羅 統一期 專制王權 강화와 村落支配> 《新羅文化》 22, 2003. 8.
- 金志垠, <新羅 景文王의 王權強化政策> 《慶州史學》 21, 2002. 12.
- 金昌賢,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9, 2008. 3.
- 金春實, <忠南 連山 開泰寺 石造三尊佛考> 《百濟研究》 21, 1990.
- 김갑동, <고려시대의 戶長> 《韓國史學報》, 1989. 9.
- 김선숙, <新羅 惠恭王代(765~780)의 國內外情勢와 對日外交> 《정신문화연구》 30, 2007.
- 김영하, <新羅 中代王權의 기반과 지향> 《韓國史學報》 16, 2004. 3.
- 김창겸,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新羅文化》 22, 2003. 8.
- 文明大, <毘盧寺 石造毘盧阿彌陀二佛像의 考察> 《高古美術》 136·137, 1976, 126~133쪽.
- \_\_\_\_\_,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美術資料》 21, 1981.
- \_\_\_\_\_, <방어산 마애약사삼존불상>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 \_\_\_\_\_, <홍성 용봉사(龍鳳寺) 정원(貞元) 15년명 마애불상 및 상봉 마애불상>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 박운진, <高麗時代 開京 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의 性格> 《韓國史學報》 3·4, 1988.
- 徐聖鎬,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 《韓國史論》 27, 1992.
- 申龍澈,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 2008.
- \_\_\_\_\_, <統一新羅時代 佛塔의 發願者와 製作者> 《文化史學》 31, 2009. 6.
- 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 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新羅文化》 26, 2005. 8.
- 李光奎, <新羅의 親族體系> 《東亞文化》 14, 1977. 12.
-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6.
- \_\_\_\_\_,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3.
-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李文基, <신라 혜공왕대 五廟制와 改革의 정치적 의미> 《白山學報》 52, 1999.

- 李炳熙, <高麗時期 伽藍構成과 佛教信仰> 《文化史學》 11·12·13, 1999. 12.
- 李泳鎭, <신라 해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 \_\_\_\_\_, <新羅의 王權과 貴族社會> 《新羅文化》 22, 2003. 8.
- 李仁哲, <新羅의 王權과 政治構造> 《新羅文化》 22, 2003.
- 李泰鎭, <士林派의 留鄕所復興運動>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임영정, <高麗隨院僧徒再考> 《東國史學》 37, 2002.
- 丁晟權, <高麗 建國期 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 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2010. 6.
- \_\_\_\_\_, <慶北 北部地域 羅末 佛像에 對한 考察> 《新羅文物研究》 5, 2011.
- \_\_\_\_\_,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의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 2, 1989.
-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研究> 《미술사연구》 14, 2000. 12.
- 최성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美術史論壇》 16·17, 2003.
- 崔鉛植, <昌林寺 無垢淨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최연식, <海南 大興寺所藏 ‘塔山寺銅鐘’ 銘文의 재검토> 《木簡과 文字》 6, 2010.
- 최응천, <고려시대 金屬工藝의 匠人> 《美術史學研究》 241, 2004. 3.
- 韓基汶,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0.
- 한기문,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북현사림》 29, 2011.
-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22, 1983.
- 한정호, <19. 到彼岸寺鐵造毘盧遮那佛造像記> 《韓國金石文集(14)》 新羅10 造像銘, 韓國國學振興院·靑溟文化財團, 2012.
- 황선영, <新羅下代 景文王家의 王位繼承과 政治의 推移> 《新羅文化》 27, 2006. 2.

ABSTRACT

## Changes in the Originators and Artisans of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of the late Silla - early Goryeo Period

Jin, Joung-hwan

It used to be thought that the late Silla Period was a period in which Buddhism spread in earnest across the country and became popularized. That is, it was thought that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was associated with that of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all classes of people, from royalty to commoners, contributed to the production of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in step with the physical spread of the art form from the capital right across the country.

This paper, with the focus on the late Silla, Later Three Kingdoms and early Goryeo Periods, reviews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data concerning the classes to which their originators belonged, the purposes embodied in the initial production of such works, and the expansion of the artisan class.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occurred most noticeably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Compared to the Unified Silla Period or the mid-Goryeo Period, the early Goryeo Period saw a noticeable number of people aspiring to be grassroots leaders in every town. Furthermore, they were willing to work for the local community. The period also displayed differences from

other periods in terms of the supply and demand for Buddhism stone sculpture artisans.

Looking at the factors that distinguish the early Goryeo Period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or the mid-Goryeo Period and thereafter, several tendencies are apparent. First, unlike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produc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the late-Goryeo Period, which were chiefly created to wish for blessings for individuals and peace for the deceased, the early Goryeo Period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produced under the leadership of grassroots leaders were created to wish for national peace and the public good, i.e. objectives that would be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s or small groups of grassroots leaders.

Second, many Buddhist rites officiated by grassroots leaders were carried out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Unlike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period saw many associations of grassroots leaders, as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late-Goryeo Period, that were characterized by segmentation and their small scale. Such associations shared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with each other. Thus,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could be produced continuously even in the new dynasty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atterns establish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Even attempts to imitate or reproduce those produc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could have been made.

Third, grassroots leaders of the early Goryeo Period played a leading role in large-scale Buddhis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stone pagodas and Buddha statues, while those of the late-Goryeo Period took part in religious rites and the production of small ritual utensils. Such a change coincided with

a change in the size of associations of grassroots leaders and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 i.e. the production of large-sized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in the early Goryeo Period followed by a reduction of their overall size in the late-Goryeo Period. Such a transition could be attributed to a decline of large associations of grassroots leaders due to a lack of the need for large-scale projects. Another possible factor is that people could rise up the bureaucratic ladder regardless of the social class they belonged to following the military leader's seizure of power and the Mongol invasions, which led to the trend of putting individual purposes first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associations of grassroots leaders. It is presumed that such a trend made it difficult to secure the funds needed to produce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managing artisans, namely, that of having sculptor artisans serve the country by turns and assigning a group of people to each temple to carry out daily chores, in the early Goryeo Period served as an occasion for the emergence and proliferation of diverse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 patterns. In the provinces, monks assigned to artisan works carried out Buddhist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stone sculptural works. It is presumed that they either inherited or imitated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of the Unified Silla and Three Kingdoms Periods and that the system of having sculpturing artisans serve the country by turns led to the spread of new patterns nationwide and to the creation of unique patterns stemming from new, traditional, retro, and traditional patterns.

Key words : late Silla Period, early Goryeo Period, Buddhist stone sculptural works,  
originator, artisan

논문 투고일 : 2014. 11. 19 심사 완료일 : 2014. 12. 2 게재 확정일 : 2014. 12. 12